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과 대일 선망의식

Adolescents' Reading of Japanese Comic Books and Envy of Japanese Goods, Japanese Culture, and the Japanese in General

이 순 형*

Yi, Soon Hyung

이 강 이**

Lee, Kang Yi

정 윤 주***

Chyung, Yun J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1) the actual reading behavior of Japanese comic books among adolescents, (2) adolescents' perception of violence and sexuality in the comic books, and (3) the effect of Japanese comic books on attitudes toward Japan.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09 elementary, 102 middle and 104 high school adolescents. Data were gather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iles, mean, ANOVA, Scheffé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s.

The results were that (1) Reading of Japanese comic books is a prevalent phenomenon among adolescents; (2) adolescents assessed the contents of Japanese comic books favorably; (3) adolescents evaluated Japanese goods as high quality, assessed Japanese culture positively and had favorable perception of the Japanese; (4)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adolescents' evaluation of Japanese comic books and envy of the Japanese.

I. 문제제기

대중 문화를 형성하는 하위 문화 집단으로 청소년층의 문화가 있다. 청소년 문화란 출생 연도에 따른 동일한 생활 경험을 한 집단으로서 청소년 집단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를 지

칭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의 가치관, 윤리 의식, 규범, 태도, 언어, 복장, 행동, 인간관계, 오락 및 여가 생활 등 그들의 내면적인 의식 구조 뿐만 아니라 외면적인 행동 양식까지를 의미한다(강현주, 1987).

청소년들은 발달한 대중 매체의 영향 하에

*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조교수

**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석사

또래 문화를 형성하여 흔히 대중 스타를 동경하고 그 태도, 언어, 복장 등을 모방하는 형태를 보인다. 청소년의 일본 문화 수용은 일본 패션, 일본 가요, 비디오, 전자 오락, 만화, 노래방 등으로 다양하다고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은 보고했다. 일본 만화 영화의 국내 TV번역 상영물이 전체 방영 만화의 26.9%를 차지하며, 일본 만화 비디오가 국내 아동물 비디오의 80%를 점하고 있는 것(정문성, 1992)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 오락 게임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온 것으로(YMCA, 1991a, 1991b), 주로 폭력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매체 중에서 만화는 그림을 통해 내용이나 과정의 전환없이 독자에게 직접 인식되기 때문에 활자 매체보다 이해가 신속하고, 용이하며, 그림과 내용에서 현실에 대한 무한한 과장, 생략, 왜곡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실과 밀착된 구어체를 사용하고, 1회성에 그치는 영상 매체에 비해 반복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대중 매체보다도 강력한 흡인력과 영향력을 가진다. 특히 과중한 학업으로 인해 활자 매체에 싫증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는 만화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상영물이 클 수 있어서 만화가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만화 매체의 특성과 더불어 아동이나 청소년은 특정 가치를 습득함에 있어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기존의 가치 체계나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야기 속의 내용이나 주인공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 또는 동화하는 시기적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인하여 만화가 단순한 모방이나 동화의 수준을 넘어 심층적 가치 체계로

내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수용하는 일본 문화 접촉 실태를 조사하고, 일본 번역 만화의 폭력성 선정성에 대한 인식과 대일 전망의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선행연구

1.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 접촉 실태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 접촉에 대해 조사한 시민 단체의 보고(YMCA, 1991a; YWCA, 1991)에 의하면, 국민학교 5·6학년생의 90.2%와 중고생의 83.5%가 일본 번역 만화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본 번역 만화가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읽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학생에게 인기있는 일본 번역 만화는 드래곤볼(84.3%), 닥터슬럼프(60.3%), 북두신권(48.8%), 시티헌터(44.7%), 베르사이유의 장미(29.4%)의 순으로 나타났다(YWCA, 1991), 중고생의 경우는 드래곤볼(81.6%), 북두신권(60.4%), 닥터슬럼프(54.3%), 시티헌터(53.9%), 베르사이유의 장미(19.3%)의 순이다.(YMCA, 1991b)

위의 일본 번역 만화는 우리 문화와 맞지 않는 폭력성, 선정성 등의 저질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구체적으로 만화 내용들이 잔인하고 살상을 정당화하는 폭력성, 여성과 남성의 성에 대한 잘못된 호기심을 유발하는 선정성, 성을 상품화시키고 비정상적 사랑을 표현하고 잘못된 여성관을 심어주는 성에 대한 왜곡, 유치하고 저속한 내용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 번역 만화의 이러한 특성은

이를 구독하는 청소년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번역 만화를 읽고 난 느낌에 대하여 국민학교 5·6학년생들은 ‘폭력적이다(47.9%)’와 ‘저질이다(57.2%)’의 응답을 많이 했고(YWCA, 1991), 중고생들은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이 많다(18.8%)’와 ‘저질이다(14.4%)’의 응답을 많이 했다(YMCA, 1991b). 그런데 이와 동시에 국민학생 응답자의 46.3%와 중고생 응답자의 48.2%가 일본 번역 만화가 재미있고 다음 편이 기다려진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일본 번역 만화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오히려 청소년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교육적 측면이나 사회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일본 번역 만화의 유해성을 인식하지만, 오락적 즐거움과 만족으로 인해 실제로는 일본 번역 만화를 읽고 싶은 욕구를 쉽게 자제하지 못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청소년들은 일본 번역 만화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일본 번역 만화의 내용은 폭력성과 선정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셋째, 독자인 청소년들은 일본 번역 만화의 유해성을 인식하면서도 오락성으로 인해 계속 접하고 있다.

2.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 접촉 결과

1) 폭력성과 선정성

음란 도서, 외설 잡지, 사진첩, 음화 등의 불량 출판물 접촉으로 인한 청소년의 행동 및

변화를 조사해 본 결과(YMCA, 1989), 불량 출판물 접촉 후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48.6%)’는 응답이 많기는 했으나 ‘자위행위를 했다(17.8%)’와 ‘직접 성 행위를 했다(3.6%)’는 응답도 상당수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불량 출판물 접촉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호기심은 해소되었으나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34.5%)’는 응답과 함께 ‘평상시 감정 억제가 힘들어지고 성적 충동을 자주 느끼게 되었다(13.9%)’와 ‘집중이 안되고 공부하기가 싫어졌다(11.3%)’는 변화도 언급하고 있다. 이 응답을 통해 볼 때, 선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불량 출판물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번역 만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 번역 만화 선호 집단의 공격적 성향을 살펴본 연구(정문성, 1992)가 있을 뿐이다. 조사 대상인 남자 청소년들을 일본 번역 만화를 선호하는 집단과 선호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어 공격적인 성향을 조사해본 결과, 일본 번역 만화 선호 집단이 비선호 집단에 비해 직접적 폭력, 간접적 폭력, 언어적 폭력 등 공격적인 성격과 행동을 훨씬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 번역 만화의 폭력성이 청소년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는 일본 번역 만화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부분적으로나마 입증해 준 것이다. 이외에도 일본 번역 만화가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실증적 조사 연구가 요구된다.

2) 청소년의 대일 의식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감정은 역사적, 환경적 산물이다. 한국인의 대일 감정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느끼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으로 현재에 이르러 오히려 심화되어가는 양상마저 보인다. 한국의 동아일보사와 일본의 朝日신문사가 공동으로 1984년, 1988년, 1990년에 걸쳐 양국 국민의 여론을 추적한 〈한일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1984년 이래로 양국 국민의 서로에 대한 반감은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인보다 한국인의 반일 감정에서 더욱 뚜렷하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YMCA가 양국의 청소년의식을 조사(1989)한 바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경우 응답자의 22.4%가 1-2년 가서 살다 오고 싶은 나라로 일본을 선호했으며 응답자의 70%가 일본인들을 근면하다고 응답해서, 청소년들의 대일 의식이 부분적으로는 호의적인 감정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인의 대일 의식에서 특징적인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명분상으로는 적대감을 보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호의를 가지는 이중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서울신문사(1991)가 문화 예술에 관련된 대학생과 예술인 100명을 대상으로 일본 문화에 접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한국내에서 일본 문화에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일본 문화에 접했을 때의 느낌으로는 ‘기분이 나쁘다’ 또는 ‘기분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29%를 차지한 반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인식으로서의 대일 감정과 직접 일본 문화에 노출될 때의 대일 감정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로서는 청소년들에게도 명분적인 수준

에서의 대일 혐오 의식이 발견되기는 하나, 일제 시대의 생활에 대한 지식이 적고 실제로 경험한 바가 아니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대일 의식이 변화될 가능성은 성인들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하겠다. 그 실례가 앞서 YMCA의 조사 결과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제시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청소년의 대일 의식 변화가 자칫 일본 문화에 대한 무분별한 선망의식으로 확대되어 청소년의 문화적 정체감 형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의 경험이 이러한 변화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 실태를 살펴보고, 그 내용의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청소년의 대일 선망의식을 살펴본 후, 청소년의 일본 번역만화에 대한 평가와 대일선망의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의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은 일본 번역 만화의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대일선망의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평가와 대일선망의식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Ⅲ.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국민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의 남녀학생 각 110명씩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2.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 실태와 대일 선망의식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 중 일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315			
변 수	집 단	빈도(100%)	
연 령	국민학교 5학년	109(34.6)	
	중 학교 2학년	102(32.4)	
	고등학교 2학년	104(33.0)	
성 별	남학생	155(49.2)	
	여학생	157(49.8)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18(5.7)	
	고졸	107(34.0)	
	대졸 이상	182(57.8)	
	무응답	8(2.5)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39(12.4)	
	고졸	136(43.2)	
	대졸 이상	132(41.9)	
	무응답	8(2.5)	
가정의 생활	상	13(4.1)	
형편에 대한 지각	중상	211(67.0)	
	중하	78(24.8)	
	하	4(1.3)	
	무응답	9(2.8)	

본 번역 만화 구독 실태에 관한 부분은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 접촉 실태를 살펴 본 시민 단체의 보고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번역 만화의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문항 22개, 일본 번역 만화 구독 후의 느낌을 묻는 문항 10개 및 한국 만화와 일본 번역 만화의 비교 문항 12개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거의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타당도는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3명이 검토하였으며, 세 명이 일치하는 문항만을 선정하였다. 일본 만화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묻는 문항의 신뢰도는 $\alpha=.91$, 구독 후의 느낌을 묻는 문항의 신뢰도는 $\alpha=.82$, 그리고 한국 만화와 일본 문화의 비교 문항의 신뢰도는 $\alpha=.68$ 로 나타났다.

대일 선망의식에 관한 질문지는 본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문항 10개, 일본 상품에 대한 문항 10개, 일본인에 대한 문항 20개이며,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거의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타당도는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3명이 검토하여 전원 일치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alpha=.92$ 로 나타났다.

3. 조사절차

조사 대상 학년의 남녀학생 각 10명씩을 대상으로 하여 1993년 3월 12일-14일에 걸쳐 질문지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보기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1993년 3월 17일-19일에 걸쳐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2학급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가 배부된 질문지에 각자 응답하게 하였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20-35분이었다.

배부된 질문지 330부 가운데 318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부실 기재된 3부를 제외한 나머지 315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분포 분석, 일원변량분석, Scheffé 검정으로 분석되었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 실태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은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이며,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는 성별, 연령별, 부모의 학력 및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 실태

청소년들이 많이 읽은 일본 번역 만화는 드래곤볼(80.6%), 닥터슬럼프(71.1%), 시티헌터(47.9%), 들장미소녀 캔디(45.1%), 베르사이유의 장미(2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시민 단체의 조사 결과(YMCA, 1991; YWCA, 1991)와 비슷한 양상으로, 청

소년들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이 상당히 일반화된 현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이들 만화가 일본 번역 만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를 질문했을 때, '알고 있다'는 청소년은 총 응답자 중 273명(86.7%)을 차지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일본 번역 만화라는 사실을 알고도 구독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자녀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을 부모가 전혀 모르거나 봐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방관형'이 전체의 73.0%로, 청소년의 만화 구독에 있어 부모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일본 번역 만화 구독을 막는 '금지형'이 22.9%, 읽어도 되는 것을 부모가 직접 골라주는 '지도형'은 0.6%에 불과해서 응답자의 부모들이 대부분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자녀의 만화 구독에 대해 부모가 거의 지도하지 않는 실정이다.

2)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평가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와 한국 만화 비교 및 일본 번역 만화 구독 후의 느낌을 조사한 결과,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일본 번역 만화를 한국 만화보다 긍정적으로 평가($M=39.64$, $SD=7.16$)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본 번역 만화가 한국 만화에 비해 '내용이 재미있고($M=4.11$, $SD=1.16$)', '다양하며($M=3.85$, $SD=1.2$)', '주인공의 행동이 멋있고($M=3.90$, $SD=1.29$)', '외모가 멋있다($M=3.93$, $SD=1.27$)'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화의 그림이 깨끗하

1) 점수의 범위는 12-60이다.

고 세련되었으며(M=3.83, SD=1.34)', '이해하기 쉽다(M=3.43, SD=1.32)'고 응답해서, 오락적인 재미와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면에서는 일본 번역 만화를 한국 만화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본 번역 만화의 내용이 한국 만화보다 '시시하거나 유치하며(M=4.20, SD=1.09)', '교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M=1.88, SD=1.18)'는 평가도 함께 제시되어서, 청소년들이 일본 번역 만화의 저질성이나 비교환적인 내용을 인식하면서도 즉각적인 즐거움을 위해 일본 번역 만화를 구독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을 금지하는 경우에 비해 부모가 이를 방관하거나 골라서 사주는 경우 의미있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일본 번역 만화 구독을 방관하거나 직접 골라서 읽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구독을 금지하는 경우보다 청소년들이 일본 번역 만화를 더 많이 접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순환적인 강화를 받기 때문인 듯하다. 말하자면, 만화의 구독 여부가 부모의 구독 지도보다 더 강력하게 일본 만화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 번역 만화를 본 후 청소년의 느낌을 조사한 결과, 만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보통 수준(M=27.34, SD=8.50)²⁾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의리가 있다(M=4.23, SD=1.12)', '남자 주인공이 멋있다(M=4.11, SD=1.26)'는 두 문항에 대

한 동의 정도가 아주 높아서 만화의 인물을 대단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등장 인물의 옷이 마음에 든다(M=3.21, SD=1.37)',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을 등장인물들처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M=2.58, SD=1.56)', '만화에 나오는 일본 옷이나 건물, 풍경 등이 좋아보였다(M=2.45, SD=1.47)',

〈표 2〉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평가

N=315			
성 별	평 균	표준편차	F값
남	41.29	6.64	16.29***
여	38.03	6.64	

***p<.001

〈표 3〉 만화 구독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평가

N=315			
부모의 태도	평 균	표준편차	F값
금 지	37.00	6.66	5.04**
방 관	40.27	6.58	
지 도	40.47	8.27	

**p<.01

'여자든 남자든 무엇보다도 예쁘고 잘생겨야 최고라고 생각한다(M=2.40, SD=1.44)'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성별, 연령별, 부모의 학력 및 태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학생(M=30.36, SD=7.77)이

2) 점수의 범위는 10-50이다.

여학생(M=24.40, SD=8.17)보다 ($F=42.99$, $df=1$, $p<.001$), 중학생(M=28.35, SD=8.61)과 고등학생(M=28.56, SD=7.13)이 국민학생(M=25.19, SD=9.26)보다 ($F=5.28$, $df=1$, $p<.01$), 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청소년(M=28.39, SD=8.27)이 부모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청소년(M=23.93, SD=8.82)보다 ($F=3.54$, $df=3$, $p<.05$), 부모가 일본 번역 만화 구독을 방관하는 청소년(M=28.98, SD=7.98)이 금지하는 청소년(M=24.64, SD=8.80)보다 ($F=6.67$, $df=2$, $p<.01$) 일본 번역 만화 구독후 의미있게 높은 긍정적인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본 번역 만화의 폭력성과 선정성

지금까지 일본 번역 만화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어 왔다(YMCA, 1991; YWCA, 1991). 본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일본 번역 만화 내용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보통 이상(M=59.51, SD=16.55)³⁾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폭력성(M=27.55, SD=9.65)⁴⁾보다는 선정성(M=31.99, SD=7.98)⁵⁾을 더 높게 지각한다.

1) 일본 번역 만화의 폭력성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

일본 번역 만화에 나타나고 있는 폭력성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인공이 싸움을 잘한다(M=4.37, SD=1.

13)', '싸우는 장면이 있다(M=3.75, SD=1.20)', '사람을 때리는 장면이 있다(M=3.63, SD=1.21)', '등장 인물들이 권총이나 칼 등 무기를 사용한다(M=3.11, SD=1.37)', '화가 났을 때나 싸울 때 물건을 때려 부순다(M=2.93, SD=1.38)', '얼굴을 짓이기거나 목이 살리는 등 끔찍한 장면이 있다(M=2.56, SD=1.35)'의 지각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서, 청소년들이 대인 폭력, 대물 폭력의 양상 뿐 아니라 그 폭력 행동의 잔인성을 비교적 강하게 지각함을 보여준다.

일본 번역 만화의 폭력성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은 연령($F=42.50$, $df=2$, $p<.0001$), 어머니의 학력($F=3.16$, $df=3$, $p<.05$) 및 자녀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에 대한 부모의 태도($F=10.76$, $df=2$, $p<.0001$)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M=64.79, SD=16.80)과 고등학생(M=64.32, SD=23.33)이 국민학생(M=49.68, SD=14.84)보다, 학력이 고졸인 어머니를 둔 청소년(M=29.50, SD=9.05)이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청소년(M=21.18, SD=9.89)보다, 부모가 방관하는 청소년(M=29.45, SD=8.75)이 부모가 자녀의 만화 구독을 지도하는 청소년(M=23.22, SD=10.08)보다 일본 번역 만화의 폭력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본 번역 만화의 선정성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

3) 점수의 범위는 22-110이다.

4) 점수의 범위는 11-55이다.

5) 점수의 범위는 11-55이다.

일본 번역 만화에 나타나는 선정성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살펴본 결과를 문항 별로 보면, ‘그림이 너무 야하다(M=2.80, SD=1.27)’, ‘남자와 여자가 서로 끌어안는 장면이 많다(M=2.74, SD=1.32)’, ‘남자들은 여자의 몸매에만 관심을 갖는다(M=2.72, SD=1.40)’, ‘여자는 남자 주인공의 멋있는 몸매에 반한다(M=2.71, SD=1.42)’, ‘등장인물이 속옷만 입고 있는 장면이 있다(M=2.58, SD=1.28)’고 응답해서 청소년이 일본 번역 만화의 지나친 신체 노출과 선정성을 지각하고 있으며 특히 성에 대해 왜곡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번역 만화의 선정성에 대해 청소년의 지각은 성별(F=11.78, df=1, p<.001), 연령별(F=15.61, df=2, p<.0001), 부모의 학력(F=4.75, df=3, p<.01) 및 자녀의 만화 구독에 대한 부모의 태도(F=9.54, df=2,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남학생(M=33.54, SD=6.94)이 여학생(M=30.43)보다 (F=11.78, df=1, p<.001), 중학생(M=33.32, SD=8.06)과 고등학생(M=34.11, SD=6.62)이 국민학생(M=28.57, SD=8.13)보다 (F=15.61, df=2, p<.0001), 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청소년(M=33.88, SD=7.81)이 부모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청소년(M=29.09, SD=8.07)보다 (F=4.75, df=3, p<.01), 부모가 자녀의 만화 구독을 방관하는 청소년(M=33.70, SD=7.49)이 부모가 구독을 금지하거나(M=33.55, SD=7.28) 지도하는 청소년(M=29.12, SD=8.84)보다 (F

=9.54, df=2, p<.001) 일본 번역 만화의 선정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연하면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일본 만화의 선정성에 더 동의하여 이 청소년들의 지도에 유의해야할 것임을 시사받는다. 또한 부모가 만화 구독에 대해서 방관하는 태도가 청소년들의 선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3. 청소년의 대일 선망 의식

청소년의 전반적인 대일선망의식을 살펴보고, 이를 다시 일본상품, 일본인 및 일본문화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의 대일 선망 의식의 정도는 중간 이상(M=128.28, SD=24.59)⁶⁾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의 성별(F=9.52, df=1, p<.01), 연령(F=23.08, df=2, p<.0001) 및 만화 구독에 대한 부모의 태도(F=6.92, df=2, p<.01)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학생(M=132.78, SD=25.24)이 여학생(M=123.53, SD=23.05)보다, 중학생(M=130.27, SD=29.13)과 고등학생(M=137.80, SD=16.96)이 국민학생(M=114.32, SD=29.13)보다, 부모가 만화 구독을 방관하는 청소년(M=133.24, SD=21.24)이 부모가 금지하거나(M=119.78, SD=26.03) 지도하는 청소년(M=123.78, SD=29.65)보다 대일 선망 의식이 더 높았다.

청소년의 일본 상품에 대한 선망의식은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M=41.07, SD=9.52)⁷⁾.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일본 상품이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M=4.26, SD=1.05)’,

6) 점수의 범위는 40-200이다.

7) 점수의 범위는 10-50이다.

‘모양이 예쁘고(M=4.25, SD=1.11)’, ‘작아서 다루거나 보관하기 쉽고(M=4.17, SD=1.17)’, ‘기발하고(M=4.16, SD=1.16)’,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M=4.12, SD=1.18)’, ‘사용하기 편리하며(M=4.06, SD=1.22)’, ‘튼튼하고(M=4.03, SD=1.17)’, ‘색깔이 곱고(M=4.00, SD=1.22)’, ‘조작이 간편하며(M=3.91, SD=1.22)’, ‘오래 사용할 수 있다(M=3.88, SD=1.23)’고 응답해서 일본 상품의 실용성과 디자인을 대단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청소년의 일본 상품에 대한 선망 의식은 청소년의 연령($F=28.60$, $df=2$, $p<.0001$) 및 자녀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에 대한 부모의 태도($F=5.68$, $df=2$, $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M=42.04, SD=8.45)과 고등학생(M=45.17, SD=6.08)이 국민학생(M=36.03, SD=10.99)보다, 부모가 만화 구독을 방관하는 청소년(M=42.70, SD=8.81)이 지도하는 청소년(M=38.69, SD=9.59)보다 일본 상품에 대해 더 높은 선망 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에 대한 청소년의 선망의식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M=60.52, SD=12.28)⁸⁾. 이를 문항별로 보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일본인은 ‘근면하다(M=3.93, SD=1.13)’, ‘유능하다(M=3.70, SD=1.27)’, ‘윗사람의 지시에 잘 따른다(M=3.70, SD=1.25)’, ‘예의바르다(M=3.64, SD=1.18)’, ‘성실하다(M=3.60, SD=1.32)’, ‘친절하다(M=3.44, SD=1.27)’, ‘겸손하다(M=3.11, SD=1.25)’, ‘책임질 줄 안다(M

=3.10, SD=1.27)’, ‘정직하다(M=3.02, SD=1.16)’등 일본인의 성격을 높게 지각하여, 일본인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이 비교적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경박하다(M=3.17, SD=1.24)’는 응답 뿐이었다. 이와 같은 일본인에 대한 청소년의 선망의식은 연령($F=14.18$, $df=2$, $p<.0001$) 및 일본 번역 만화 구독에 대한 부모의 태도($F=6.92$, $df=2$, $p<.01$)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국민학생(M=55.06, SD=15.02)에 비해 중학생(M=61.96, SD=9.76)과 고등학생(M=63.71, SD=9.65)의 일본인에 대한 선망 의식이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가 자녀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을 금지할 때(M=119.78, SD=26.03)보다 이를 방관할 때(M=133.24, SD=21.24) 청소년의 일본인에 대한 선망의식이 의미있게 높았다.

일본 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선망의식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M=26.10, SD=9.65).⁹⁾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닌텐도와 같은 일본 오락팩의 내용은 재미있다(M=3.19, SD=1.61)’, ‘일본 잡지를 보면 재미있다(M=3.18, SD=1.45)’, ‘일본 비디오를 보면 신나는 내용이 있다(M=2.92, SD=1.53)’, ‘일본 방송에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고싶을 때가 있다(M=2.83, SD=1.51)’로 나타나서, 특히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청소년의 높은 관심과 호감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일본 문화에 대한 선망의식은 성별($F=22.79$, $df=1$, $p<.0001$), 연령($F=8$.

8) 점수의 범위는 20-100이다.

9) 점수의 범위는 10-50이다.

56, $df=2$, $p<.001$) 및 자녀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에 대한 부모의 태도($F=9.16$, $df=2$, $p<.001$)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남학생($M=28.71$, $SD=9.86$)이 여학생($M=23.56$, $SD=8.75$)보다, 고등학생($M=29.07$, $SD=8.35$)이 국민학생($M=23.64$, $SD=9.51$)

과 중학생($M=25.59$, $SD=10.30$)보다, 부모가 일본 번역 만화 구독을 방관하는 청소년($M=28.27$, $SD=8.95$)이 금지하거나($M=22.48$, $SD=10.20$) 지도하는 청소년($M=24.68$, $SD=9.70$)보다 일본 문화에 대해 더 높은 선망 의식을 나타냈다.

〈표 4〉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대일 선망의식

				N=315	
대일 선망의식	연령	국교생	중학생	F 값	
		M(SD)	M(SD)		M(SD)
일본상품		36.03(10.99)	42.04(8.45)	45.17(6.08)	28.60****
일본인		55.06(15.02)	61.96(9.76)	63.71(9.65)	14.18****
일본문화		23.64(9.51)	25.59(10.30)	29.07(8.35)	8.56***

*** $p<.001$ **** $p<.0001$

〈표 5〉 만화 구독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대일 선망의식

				N=315	
대일 선망의식	부모의 태도	방 관	지 도	금 지	F 값
		M(SD)	M(SD)	M(SD)	
일본상품		42.70(8.81)	38.69(9.59)		5.68**
일본인		133.24(21.24)		119.78(26.03)	6.92**
일본문화		28.27(8.95)	24.68(9.70)	22.48(10.20)	9.16***

** $p<.01$ *** $p<.001$

4.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평가와 대일 선망의식

청소년이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인 평가가 청소년의 대일 선망의식과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이 일본 번역 만화를 구독한 후 느끼는 긍정적인 평가 정도와 대일 선망의식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대일 선망의식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r=0.58$, $p<.001$)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표 6〉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일본 문화에 대한 선망의식, 일본 상품에 대한 선망의식 및 일본인에 대한 선망의식 사이에는 모두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일본에 대한 선망의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평가와 대일 선망의식이 별개의 차원이 아니라 동일 차원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6〉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평가와 대일 선망의식

변 수	일본번역 만화에 대한 평가
일본상품	0.46***
일본인	0.33***
일본문화	0.63***

***p<.001

V. 결론 및 제언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 실태와 대일 선망의식에 대해 살펴본 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국민학교의 고학년 아동을 비롯한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이 일상적 현상이 재확인되었다. 일본 번역 만화 구독이 일상화된 현상이라면 그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고학년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본 번역 만화 구독 후의 느낌에 대해 이들은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번역 만화를 구독한 후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배경뿐 아니라, 만화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한국 만화와 일본 번역 만화를 비교하도록 하였을 때 한국 만화보다 일본 번역 만화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 번역 만화의 주요 내용인 폭력성과 선정성의 측면을 살펴볼 때, 청소년들은 일본 번역 만화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지각한다. 청소년들의 폭력성 지각 수준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

가 없으나, 선정성 지각 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남학생의 선정성 지각 정도는 여학생보다 높다. 그 이유는 만화의 선정적인 내용이 남성의 신체보다는 여성의 신체와 주로 관련되며 이 점이 남학생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응답자의 학년이 높을수록 폭력성과 선정성의 지각 정도도 증가했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 만화가 주는 폭력적이고도 선정적인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인지 능력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선정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와같은 폭력성과 선정성 지각은 청소년들의 행동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한 부분적인 경험적 증거가 제시된 바 있으며(정문성, 1992; YWCA, 1989), 따라서 청소년이 구독하는 일본 번역 만화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과 그 효과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부모의 관심과 태도가 자녀의 만화 구독 및 수용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청소년이 일본 번역 만화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지각하는 정도, 일본 번역 만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 및 대일 선망의식에 모두 일관되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방관형의 부모를 둔 청소년이 금지형의 부모를 둔 청소년에 비해 폭력성과 선정성의 지각 정도가 높은 반면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대일 선망의식이 가장 높다. 이는 방관형 부모

를 둔 청소년들이 금지형 부모를 둔 경우보다 일본 번역 만화를 구독한 경험이 더 빈번하고 구독한 내용에 대한 해석에 전혀 성인들의 영향이 첨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각적 해석에 기우는 까닭인 듯하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는 타국가에 대한 선망의식은 상대 국가의 수용과 모방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모두 수행할 가능성을 가지며, 이는 특히 청소년기에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타국 문화의 수용은 자국 문화의 고유성에 대한 의식 약화라는 문제를 야기시키며, 특히 상대의 문화가 저급 문화일 때 그 부정적 파급효과는 더 증대된다.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청소년들의 일본 번역 문화 구독에 따른 폭력성의 증가(정문성, 1992)와 선정적인 상상이나 성행동에 대한 관심의 증가(YWCA, 1992)로 밝혀진 바 있다.

근세사적으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국가 관계는 현재에도 여전히 적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잘해야 경쟁관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대일 의식은 국가간의 관계와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일본인 개인에 대한 인식은 별개의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 즉, 개인의 대일 의식은 명분이나 역사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과 개인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일본 상품이나 일본 사람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본 연구결과에서도 그러한 점이 분명히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일본 상품, 일본인 및 일본 문화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전반적인 대일 선망의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대일 선망의식이 더 높으며, 국민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일본을 더 선망한다. 그리고 자녀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에 대해 방관형의 부모를 둔 청소년이 금지형이나 지도형의 부모를 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대일 선망의식이 더 높다. 즉,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과 대일 선망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청소년의 성, 연령 및 부모의 태도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외래 문화의 수용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조사의 과제 특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성차에 의한 것인지가 확실치 않아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대체로 고등학생이 국민학생이나 중학생보다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평가나 대일 의식에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일본 문화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의 수용 정도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된다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인데, 연령이 증가되면서 대일 선망의식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금지형, 방관형, 지도형의 세 범주로 나누고 그 영향을 살펴 보았을 때, 부모가 자녀의 일본 번역 만화 구독을 방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방관형의 부모를 둔 청소년들은 만화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동시에 일본 번역 만화의 오락적 요인도 높게 지각하며, 대일 선망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만화구독의 빈도와 만화가 주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자국의 해석 및 대일 선망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끝으로, 청소년의 일본 번역 만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일본에 대한 선망 의식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본 대중 문화의 접촉이 문화의 수용을 넘어서 문화적 제국주의의 형태를 띠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청소년들의 일본 번역 만화의 구독에 대해서 다음의 제안을 한다.

첫째, 부모와 전문가들은 일본 번역 만화가 청소년층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실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론의 공감을 통해 실제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모나 아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영향력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 및 교사들의 관심과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가 요구된다.

둘째, 자녀의 올바른 만화 구독을 위해서는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 TV를 비롯한 대중 매체들은 부모의 지도를 강조하여 부모들을 교육시킴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성인들의 지도 역할에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이다. 대중 매체를 통한 사회 교육은 실질적으로 만화를 인가하고 감독하는 관청은 물론이고 만화를 출판하는 업자들에게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배려하도록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대일 의식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적대적 의식과는 상반되어 호의적이라는 점에서 이중성을 특징으로 한다. 즉, 역사적 관계에서의 적대적 인식과 실생활에서 일본인이나 일본상품을 접하면서 가지는 호의적 감정이 공존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일본 문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본의 저질 대중 문화의 수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이 일본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

만을 선택, 수용하여 보다 나은 우리의 것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부모 및 성인과 사회의 지도가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대근. (1984).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환경. 청년연구, 제7집, 65-95.
- 강현두. (1987). 한국의 대중문화. 서울:나남.
- 김승민. (1989). 학습 만화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용린. (1992).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의식 분석-평화교육 정착을 위한 서설. 한일 사회교육 세미나 발표 논문.
- 박성희. (1992).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3(3).
- 서울 YMCA. (1989). 청소년 불량 출판물 접촉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2차). 서울 YMCA 사회개발부.
- 서울 YMCA. (1991a). 청소년불량만화(일본 번역만화) 접촉에 대한 모니터 조사 보고서. 서울 YMCA 사회개발부.
- 서울 YMCA. (1991b). 청소년불량만화(일본 불량만화) 접촉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서울 YMCA 사회개발부.
- 서울 YWCA. (1991). 일본 번역 만화에 대한 어린이 의식 설문조사 보고서.
- 정문성. (1992). 일본 대중 문화가 한국 청소년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일본 번역 만화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4), 19-35.
- 최충욱. (1992). 청소년 유해 인쇄매체의 실태와 개선 대책. 체육청소년부.